

## 통신서비스

### 통신비 인하에 무게를 더하는 세 가지 뉴스

#### 통신서비스

Analyst 정지수  
02. 6098-6681  
jisoo.jeong@meritz.co.kr

####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정부가 제시한 선택약정할인을 상향 조정안에 대해 통신 3사는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짐. 하지만 정작 이 날 가장 주목을 받은 뉴스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통신 3사를 상대로 각각 실태 점검과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 [통신사] 선택약정할인을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서 제출

9일 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을 20% → 25%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의견서에는 정부 방침에 대한 유감과 상향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 미약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 통신사들은 이번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소송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

#### [방통위] 선택약정할인제 고지 실태 점검 발표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가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들에게 할인제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오는 25일까지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발표.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선택 약정 고지 미비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약 21억원 처분이 내려진 바 있음. 이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존재

#### [공정위] 통신 요금제 담합 의혹 관련 현장 조사 착수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통신사들의 요금제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 현재 SK텔레콤과 KT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실무자 면담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LG유플러스에 대한 현장 조사도 이어질 예정

#### 시사점

통신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 시행 여부를 쉽사리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실태 점검과 공정위의 담합 의혹 조사를 통해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통신비 인하 대책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8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8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8월 1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지수)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